

**2020년도
주요업무계획**

2020. 3. 11.



문화재청

목 차

I .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	1
II .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	4
III . 2020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	6
1.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	7
2.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	10
3.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·전승	15
4.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	21

I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

1. 주요 성과

(1)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·전승

□ 가야문화권 조사·연구의 가시적 성과도출

- 가야문화권 문화재 신규 지정*,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후보 선정('19.3월)
* 사적 3건('창녕 계성 고분군' 등), 보물 8건(부산 북천동 청동칠두령 등)
- 호남권 가야연구를 전담할 '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' 개소('19.7월)

□ 문화재 수리제도 개선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수리품질 제고

- 의무 감리대상을 확대하고(3억원→1억원), 책임감리제도 도입(30억 이상)

□ 무형문화재 안정적 전승환경 조성

-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장기간 보유자 없는 종목보유자 인정
* (신규 지정) 전통어로 등 5종목, (보유자 인정) '살풀이춤' 등 4개 종목 9명
- 노후공방 개선(6개소), 전수교육관 확충(8개소) 및 운영지원(157개소)

(2)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

□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- 궁궐 및 지역문화재 향유 관람객 증가('18년 1,506만명→'19년 1,732만명)
- 활용프로그램 증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지속 증가세
* ('18.) 2,565억원, 2,235명 → ('19.) 2,701억원, 2,359명

□ 어려운 문화재 안내판, 알기 쉽게 개선 추진

- 일반국민이 알기 쉽고 재미있는 안내판으로 정비
* (목표) 1,740개소, 2,500여건 / (완료) 978개소, 1,180여건 / (이월) 762개소 1,320여건

□ 근·현대 문화유산의 발굴 확대 및 보호·활용 체계 개선

- 근대역사문화공간 추가 발굴·선정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
('18.) 3개소(군산·목포·영주) → ('19.) 5개소(영덕·익산 추가 선정)

[3]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

- 세계유산 등재 및 유네스코 협력기구 설립 추진으로 국제위상 강화
 - ‘한국의 서원’ 세계유산 등재(‘19.7월), ‘한국의 갯벌’ 등재신청(‘19.1월)
 - 「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」 국내 유치(유네스코 총회 승인, ‘19.11월)
- 환수방식 다각화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대폭 증대
 - 기증·매입 및 민간단체 매입 지원 등을 통해 325점 매입
* (‘17.) 24점 → (‘18.) 92점 → (‘19.) 325점
- 남북 문화유산 교류사업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
 - ‘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’ (‘19.3월) 및 ‘정책포럼’을 구성·운영(‘19.6회) 하고,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등재 준비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(‘19.4월)

[4]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

-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문화유산 정책비전 제시(‘19.6.11.)
 - 첨단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,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등 6대 전략과 56개 세부과제 마련
- 문화재 인근 거주 지역주민의 불편 완화
 -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기준을 완화하고, 보존유적 토지매입 최초 시행
*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(‘18년 310건→‘19년 401건), 토지매입(경주 구어리 유적 등 15건)
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(230건)으로 주민불편 경감
* (누적) ‘15~‘19년 1,091건(전체 84% 완료)/ (효과) 규제 강한 ‘개별심의구역’ 15.4% 감소
- 문화재 산업 발전 토대 마련
 - 문화재 수리 특수기술 분야 진입장벽 완화 및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등록기준 완화 추진 등을 통해 문화재분야 산업 성장여건 개선
 - 문화재 산업 분류 구조안 마련 및 ‘국제 문화재 산업전’ 개최(‘19.9월)

2. 평가 및 반성

(1) 문화재 보존·전승 환경 개선의 가시적 성과 미흡

- 문화재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였으나, 문화재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
-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확대, 보존유적 매입 등 국민부담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하고, 문화재 훼손 우려 여전

* 매장문화재 훼손 증가 : ('16.) 15건 → ('19.) 50건

(2)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요구

-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의 양적증대는 이루었으나, 지역별·사업별 특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질적 향상 미흡
- 5G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최근 트렌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부족

(3) 국외소재문화재 조사체계 개선 및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 필요

- '양(量)' 중심의 국외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극복하기 위해, 국외 문화재 조사내용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활용시스템 구축 필요
- 세계유산 등재 후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·활용 콘텐츠 부족

(4) 문화유산 정책 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기반 미흡

- 문화재 자원 확보를 위해 일부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전체 문화재 자원을 파악하고 보존·전승하기에는 역부족
-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, 문화재산업 발전 토대 마련에는 한계

II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

1. 정책추진 여건

□ 지난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 요구

- 지정문화재 위주의 문화재 보존방식으로 인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
-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수리의 진성성 회복을 위해 수리재료 개발·활용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다수

□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 향유하려는 요구 증가

- 문화유산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 증대
 - * 문화유산 방문목적('18년 조사) : 여가(휴식) 54.2%, 역사체험 16.9%, 자녀교육 13.1%
-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유산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미흡
- 5G 이동통신기술을 문화재와 접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체험하고자 하는 미디어 세대 요구 증가

□ 문화재와 사람·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요구 증대

- 매장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사항 지속 표출
- 문화유산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, 새로운 문화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미흡

□ 국제적 역할증대 및 세계유산 가치 공유·확산 요구

- 정부 대외정책*에 부합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유산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문화유산 국제개발 협력(ODA) 확대 필요성 제기
 - * 신남방정책(한-아세안 정상회담), 신북방정책(러시아몽골·중앙아시아 등 협력강화)
- 신규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체험 및 활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

2. 대응 방향

□ 문화유산 보존·관리체계를 포괄적 보호체계로 개선

-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존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 추진
-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문화재 안전관리 현장에 접목하고, 문화재 재난 대응을 위해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환경 구축 강화

□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

-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제고 및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·육성을 통해 문화유산 관광객 1,800만 시대 도래 준비
- 5G를 활용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복원이 어려운 문화재까지 눈으로 보고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·보급

□ 문화재 지역 거주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유산 산업육성
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확대하고, 매장문화재 지표·표본·시굴조사 비용의 전면 지원 등 불편사항 획기적 해소
- 규제완화를 통한 문화재 산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, 문화유산 기업 경제활동 지원 방안 강구 등 산업 육성방안 제시

□ 문화유산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세계유산 가치 확산 체계 마련

- 아세아-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,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에 부합하는 ODA사업 확대 추진
- 세계유산 해석에 대한 국가간 이견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신설하고,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체계 강화 추진

Ⅲ 2020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

비전

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,
문화재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.

목표



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

-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
-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
- 문화유산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



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

-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·지원
-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및 민간 참여 활성화
-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콘텐츠 구현
- 배려계층을 위한 장벽 없는 문화유산 향유



굳건한 문화재 보존·전승

-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문화재 안전관리
- 온전한 보수·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
- 전통기술 진흥과 수리품질 향상
- 품격있고 공정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



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

- 궁능,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로 육성
-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가치 확산
-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와 활용
- 문화재 국제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

1]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

□ 문화유산 정책대상 확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

- (정책대상 확대)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하는 한편,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본격 시행
 - 훼손·멸실 우려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단계적 실태조사 실시
 - * ('20.) 대구·경북·강원권, ('21.~'24.) 기타 전국 시도
- (관리체계 개편) 근현대문화유산법·자연유산법·수중문화재법 제정을 추진하고, 비지정문화재 관리체계 법제화 병행
 - 적산가옥 등 일제강점기 건축유산의 가치 재평가 및 명칭 재검토

□ 탄탄한 문화재 정책실행 기반 구축

- (지자체 역량평가 모델 개발)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역량*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, 시범적용하여 '21년부터 전국 지자체 확산 추진
 - * 전담조직·인력·제도, 주민참여도, 단체장의 관심도, 갈등관리 등
- (문화재 영향평가 도입)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개발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영향평가제도 도입('21.관계부처 협의)을 위해 기초연구 실시('20.)
 - * (대상지역) 세계유산지역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, 지표조사가 필요한 개발지역
- (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) 문화재 관람료 징수비율 조정(10→20%), 징수대상 문화재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 추가확보 추진
- (문화유산헌장 개정) 보존 중심의 문화재헌장에서 보존과 진흥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(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)

□ 문화유산 연구기반 확충

- 문화유산 R&D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추진
 - * 국립자연유산원·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 및 유물연대측정기 도입
- 권역별 수중문화재 연구기능 강화 추진(행안부 협의)

2]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

□ 문화재 지역 거주주민의 불편 완화

- (국민불편 완화)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'건축행위 등 허용기준' 재조정* 을 완료하고, 지자체장의 현상변경 등 허가권한 확대** 추진
 - * 1,300여건 완료('15~'20년, '20년 230건)
 - ** '경미한 현상변경 허가 위임범위' 확대('20.하.),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시행 강화
- (국민부담 경감)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비용 지원을 확대*하고, 표본·시굴 조사 비용**은 '21년부터 전면 지원 추진
 - * ('19년) 3만㎡ 미만 → ('20년) 모든 지표조사 지원
 - ** ('19년) 소규모 단독주택 등 지원 → ('20년) 시굴조사 전면지원 법령 개정 추진

□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

- (부담 등 완화) 발굴경비 지원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*(매장법시행령 개정) 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, 불필요한 행정규제** 완화
 - * ('19.) 단독주택 792㎡, 농업시설·공장 2,644㎡ 이하 → ('20.) 유형·면적과 관계 없이 청장이 완화하여 고시한 기준(사회복지시설, 장애인시설 등)
 - ** 수리업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(일부 은행·보험회사 → 모든 은행·보험회사),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절차 간소화(모든 사업장 → 최근 사업장)
- (진입장벽 완화)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*로 진입장벽 철폐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)하고,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** 추진
 - * ('19.) 대학에서 문화재 분야 1년 이상 전공자 → ('20.)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 - ** ('19.) 기술자 1명, 기능자 2명 이상 → ('20.) 기능자 2명 이상

□ 국민 생활밀착형 문화재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

- (문화재공간정보 제공) 일반국민과 문화재관련 단체·기관에게 문화재 구역 위치·범위 정보 등 원본자료를 전면 개방 추진(1월)
 - * ('19년)신청자료 공개(170건)→('20년)GIS 원본자료 공개(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등 15만건)
- (공공데이터 발굴·개방)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우선 확대* 개방하고, 개방데이터의 활용 촉진 방안** 마련('20.상)
 - * ('19년) 79종 → ('20년) 89종(문화유산 행사정보, 문화재 수리정보 등)
 - ** ('20년) 연구기관·대학·단체 등에 제공, ('21년)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등

③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

□ 문화유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

- (산업통계 조사) 문화재 산업 및 연관 사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, 국가승인 통계에 반영('20. 통계청 협의) 하여, 관련산업 현황조사* 추진
* 산업 규모, 기업체수 및 매출, 고용 현황 등('21.)
- (문화유산 산업생태계 조성) 대학 등 유관기관·단체와 상생협력 선순환 네트워크*를 구축하고, 전승공예품 유통촉진 및 브랜드화 추진
* 우수인재 양성(전통대 등)→취·창업 지원(문화재단, 콘텐츠진흥원)→ 공공 프로젝트 개발 등 지속적인 수요 창출(문화재청, 관광공사, 문화재단)
- (기업 경제활동 지원) 문화재 기업 제품 홍보 및 기술 발전을 위해 문화재산업전*을 내실화하고, 수요자 위주의 안정적 재원** 확보 추진
* 투자 설명회 개최, 국제협력 강화, 바이어 유치 확대 등
** 모태펀드 계정 신설 추진(중기부·기재부 협의)

□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

- (1지자체 1사회적 기업) 문화재 관련 콘텐츠(교육·식품·관광 등)를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지원 모델 개발* 추진
* ('20~'21) 운영모델 연구→('22~) 마을기업 공모,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금융·컨설팅 제공
- 고도·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
- (지속가능한 일자리) 안정적 일자리 확대 추진('19년 4,323명→'20년 4,808명)
 - 문화재 돌봄인력, 안전경비원, 공능일자리 확대('19년 1,945명→'20년 1,988명)
 - 전수교육관 무형문화재 교육인력 의무채용('20년 신규 70명),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('20년 신규 45명)
 - 궁중문화축전, 지역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등 문화유산 활용 확산을 통한 고용창출('19년 2,359명→'20년 2,685명)

1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·지원

□ 대표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육성·지원

- (문화유산 방문 캠페인) 내외국인의 문화유산 방문기회 확대(4~12월)
 - 대표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(7건*), 공연·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** 시행
 - * 천년 정신의 길, 백제고도의 길, 서원의 길, 수행의 길, 왕가의 길 등
 - ** Stage on Korea('20.7월, 공연과 함께 하는 한국 문화유산), Korean Grand Sale('20.1~2월, 전승공예품 부스 운영 및 특별판매전) 등
 - 내외국인 방문 확대 유도를 위해 특별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방문캠페인 홍보 추진
- (세계유산축전) 등재 1주년된 '한국의 서원' 및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* 개발·육성
 - * 가치향유 프로그램(역사적 사건 재현행사·전시·공연)과 가치 확산프로그램(강연·워킹투어 등)을 통합, 다채롭게 구성

□ 지역문화유산 활용 확대 및 공감대 확산

- (지역문화유산 활용)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확대 하여,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재발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 - (신규 프로그램) 고택·종갓집 활용 프로그램 신설(39개소)
 - (기존 프로그램) 지역문화재 활용프로그램 확대 시행(290 → 346개소)
 - * (문화재 야행) 27개소 → 36개소(수원 문화재야행, 경주 문화재야행 등)
 - * (생생문화재 사업) 132건 → 159건(거창 수승대, 영월 장릉 등)
 - * (향교·서원 활용) 97개소 → 113개소(광주 월봉서원, 논산 돈암서원 등)
 - * (전통산사 활용) 34개소 → 38개소(남원 실상사, 제주 선덕사 등)
- (전문인력 양성) 지역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(120 → 180명) 하며,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*으로 전환
 - * 활용 기획·실무, 문화재보존 등 활용프로그램 참여인력 역량 강화

□ '직접 느끼고 만질 수 있는' 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

- (발굴·수리현장 공개) 학술 발굴현장 공개 의무화 및 공개 일정 안내 시스템 구축(11월)하고, 수리현장 공개를 확대하여 체험형 교육장으로 활용
 - *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고시('20.하)
 - * 발굴조사 현장공개(146 → 180개소),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(25 → 27개소)
- (대민 접점기관 프로그램) 각 기관의 특성과 문화재의 가치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향유 콘텐츠 제공 확대
 - * (문화재연구소) 대형응관 제작 체험(4월, 9월), 초등학생 자연유산 체험(7~8월)
 - * (국립고궁박물관)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(신규 5종), 열린수장고 견학프로그램 운영(연중)
 - * (해양문화재연구소) 조선통신사선 축제(5월, 부산), 해양유적 문화기행(6~10월)

□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재생 활성화

- (기존사업 내실화) 종합정비 계획 수립, 근대 건축자산 매입 및 등록 문화재 보수 등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
- (사업확산) 지역별·유형별 특성 고려한 사업 공모(8~12월)를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추가 발굴(2~5개소 추가 / 군산·영덕 등 5개소 → 7~10개소)

□ 알기 쉽고 재미있는 문화재 안내판으로 지속 정비

- (안내판 정비) 전문가 위주의 안내문안으로 어렵게 표시된 문화재 안내판을 모든 국민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지속 정비
 - * ('19년) 1,740개소 2,500건 추진(이월포함) → ('20년) 764개소 1,400건 추진
- (협력체계 구축) 안내문안 작성과정에 국민이 참여*하고, 안내문안 감수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, 안내문안 컨설팅 제도 도입(2~6월)
 - * 「시민자문단」 및 문화재안내판 오류신고센터 운영, 대국민 이벤트 개최(6~8월)

□ 지역문화유산 정비·활용으로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

- 지자체로 이양된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·지원* 추진
 - * 광주(경기)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,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등

②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및 민간 참여 활성화

□ 문화재 교육 추진기반 강화

- (제도 정비) 문화재 교육 기능 법제화에 따라 문화재 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,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추진('20.하)
- (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) 문화유산교육 실시가능 기관·단체 기초 조사를 실시('20)하고, 교육센터 지정*을 위한 적격기관 공모 준비
 - * ('21년) 거점별 3개소 → (~'25년) 시도별 지정 17개소
- (전문인력 양성) 우선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전문인력* 양성을 추진하고, 교육지원센터를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 추진('21년 이후)
 - * 초중학교 교사(역사·사회과목), 문화재교육단체 강사(교수법, 교보재 활용 방법 등)

□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확대

- (학교 교육) 초중학교 대상 문화유산교육은 지속 추진하고, 교육현장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 확대*
 - * ('19년) 1개 교육청(경기도) → ('20년) 5개 교육청 → ('22년~) 17개 교육청
- (사회 교육) 지역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을 테마로 하는 문화유산 사회교육 진흥방안 마련('20.하)
 - * 전통공예 시민공방(48회), 왕실태교(64회), 수중발굴 체험 프로그램(12회, 신규) 등
- (취약계층 교육)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확대*하고, 교정 시설 대상 청소년 교육 신규 추진(법무부 협업)
 - * ('19년) 5,700여명 → ('20년) 7,000여명(지역아동센터, 다문화가정, 이주배경청소년)

□ 문화재보호 민간참여·협력 활성화

- (시민참여 확대) 국민신탁 지부를 추가 신설(부산·대전 → 호남권역 지부 1개소 추가) 하고, 문화재보호 활동 참여대상 다변화(내국인 → 외국인 추가)
- (민관 파트너십 강화) 기업의 사회공헌·경영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후원·협력사업*을 발굴 하고, 국민 참여형 지킴이 사업 확대
 - * 문화재 보호 분야 기업별 관심사업(천연기념물 보호, 문화재 환수 등)

③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콘텐츠 구현

□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성화 기반 조성

- (종합계획 수립) 문화유산 기반 실감형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('20.상)하고,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기준* 제시('20.하)
* 콘텐츠간 호환을 위한 기술표준, 활용 가이드(지자체·공공기관 등에 배포)
- (연구개발 및 인력양성)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신기술을 전문기관과 공동연구* 등을 확대 하고,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** 체계 강화
* ETRI, 국립문화재연구소, 전통문화대, KAIST CT 대학원 등 참여
** 전통문화대 문화유산전문대학원(10억원, 5G 실감 MR 체험 복원 콘텐츠 개발)
- (창작활동 지원) 시민·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 원천 데이터를 축적·개방('20.)하여, 민간의 창작활동*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구축('21.)
** 웹툰, 게임, 스토리 창작, 3D 프린팅, 영화, 드라마 등

□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고도화

- (교육·체험 콘텐츠) 문화유산의 이해와 흥미를 배가하는 문화재 가상체험* 및 유·무형유산 통합콘텐츠** 등을 개발·보급 확대(44억원)
* 주요 건축유산(수원화성 등) 축조과정 콘텐츠, 문화유산 수중발굴 체험 등
** 궁중 의례재현(종묘제례, 왕 즉위식, 과거시험 등)
- (역사도시 디지털 복원) 개별문화재 디지털 복원에서 역사도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고, 향후 고도(古都)를 대상으로 디지털 복원 추진
* ('20.~'22.) 한양도성(300억원) → ('23.~) 경주·공주·부여·익산 등

□ 디지털 문화유산 향유시설 구축 및 보급 확대

- (디지털 향유시설) 전통문화미디어를 설치*하고,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(고궁박물관) 및 무형유산 뉴콘텐츠체험관(무형원) 운영 개시(2월)
* 전통문화 우수성 국제 홍보를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(67억원)
- (온라인 서비스) 문화유산채널에서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를 우선 개시* 하며, 국내 이동통신사와 5G 활용 협력체계 구축 후 시범서비스** 착수
* '20.1월부터 30편(기제작 콘텐츠 4편, '20.하 26편)을 순차적으로 서비스
** 5G 기술을 활용한 AR 콘텐츠 제공('20.하, 3~4건, 궁궐 관람코스)

4 배려계층을 위한 장벽 없는 문화유산 향유

□ 배려계층 문화유산 향유 활성화 토대 마련

- (전국 실태조사) 문화유산 공공서비스 전국 실태조사*를 통해 편의 시설 및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파악 추진
 - * 배려계층 대상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조사(장애인 등 배려계층 단체 의견수렴)
- (제도개선) 문화유산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
 - 지역문화유산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시, 배려계층 친화형 프로그램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
 -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문화유산 시설 보수·정비 시, 배려계층 시설을 개선하도록 규정* 개정('20.1~2월)
 - *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집행지침,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집행지침

□ 사회적 배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- (사회배려 계층) 홀몸 어르신, 다문화 가정,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* 확대 운영 추진
 - * (신설) '동행, 문화유산'(시도별 공모, 30억원),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(새터민), 창경궁 숲길을 거닐다(장애우, 새터민, 다문화가정), 치매 예방 힐링(문경) 등
 - * (확대)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(25 → 35개소)
- (소외 지역·시설)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이 미흡한 지역·시설을 방문하여 '디지털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' 신규 운영
 - * 농어촌·도서산간지역, 보육원, 장애인 학교, 노인복지 시설, 도서(섬, 해양문화재연구소) 등

□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

- (무장애 공간) 문화유산 지역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확대 설치하고, 단계적으로 전국 문화유산으로 확산
 - * ('19년) 창경궁, 선정릉 → ('20년) 덕수궁, 태강릉, 단양 온달동굴 등 추가
- (무장애 공연·관람) 장애인 불편 개선을 위해 공연·관람 지원 서비스 확대
 - * 수화공연·해설 및 자막공연(무형유산원), 수화해설영상콘텐츠 제공(고궁박물관) 등

1]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문화재 안전관리

□ 첨단기술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

- (정보통신기술 접목) 전기화재 위험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사전제거할 수 있는 전기화재 예방 ICT시스템*을 문화재**에 최초 적용
 - * 누전 등 화재원인 센서감지, 상황 자동전파(한국전기안전공사, 소유자 등)
 - ** 고택 등 문화재 소유자·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문화재 우선설치(50건)
- (새로운 기술 도입) 딥러닝*, 드론**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문화재의 안전관리 기능 개선 추진
 - * 침입 상황에 따라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침입감시 시스템 개발 연구
 - ** 문화재 예찰, 피해조사 등에 활용하는 기술 연구 및 시범도입(경주 남산)

□ 문화재 현장별 방재자원 활용 극대화

- (방재시설 확대, 기능개선) 방재시설*을 확대 설치(주요목조문화재 439개 중 75% 329개 → 83% 364개) 하고, 노후시설은 지속 현대화 추진
 - * 소방(소화전, 속보설비 등), 방범(CCTV, 적외선 감지기 등)
- (안전경비원 배치) 국보·보물 등 주요목조문화재 중심으로 배치(539명) 하는 한편, 공능 현장에 방재인력 추가 배치(293 → 317명, +24)
- (돌봄사업 고도화) 문화재 돌봄대상(7,587→8,126개소) 및 인력을 확대* 하고, 수행인력 전문성을 강화**하는 한편, 법적근거 마련 추진
 - * 돌봄인력(703→730명), ** 수리기능자 등 자격자 확대(312→365명), 실습교육강화

□ 사전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환경구축

- (현장중심 매뉴얼)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로 개편(목조문화재 830건)
- (생물피해 예방) 주요 목조문화재(50건) 모니터링 결과, 흰개미 등에 의한 피해가 진행 중인 문화재 대상 방충사업 확대 실시(22→27건)
- (발굴현장 안전) 현장 안전점검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, 조사요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,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방안 마련 추진

② 온전한 보수·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

□ 한국전쟁 70주년과 4.19 60주년 계기, 문화재 발굴 및 복원·정비

- (목록화*) 지자체 추천,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진
 - * 6.25 관련 기록물, 참전용사 및 납북자 유품, 유엔군 관련 자료, 4.19 혁명 전단지 및 참여자 자필 등 200여건
 - (용산미군기지) 건축·시설물 문화재 가치 조사를 위한 현황조사 및 문화재 등록 등 보존방안 마련
- (문화재 등록·지정, 세계유산 등재) 한국전쟁 유산 및 4.19 유물을 집중 발굴*하고,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**
 - * 전투상보, 참전용사(국군·유엔군) 유물 10여건
 - ** 「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
- (복원·정비)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·정비*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
 - *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,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및 정부청사 등
- (사회적 가치 확산) 한국전쟁 참전용사 헌신, 동족상잔의 비극, 이산가족의 아픔 및 4.19 혁명 민주이념 계승 등을 조명하여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
 - 전쟁의 상흔을 조명하는 특별전 및 학술행사(5~6월, 고궁박물관·문화재연구소)
 - ‘문화유산으로 본 한국전쟁(가칭)’ 인문강좌 순회 개최(5~6월, 국립박물관, 국립도서관 등 참여), 북한 유래 무형유산 공연(무형유산원)
 - 4.19 혁명 기념 학술대회 및 특별전 개최(4월, 문화재연구소)

□ 일제강점기 변형 훼손된 문화재 복원·정비 지속 추진

- (궁능 복원정비) 일제에 의해 변형·훼손된 궁능 문화유산의 온전한 복원·정비로 궁능의 역사성 회복 및 국민 자긍심 고취

궁	경복궁	◆ 광화문 월대 복원 등 역사광장 조성 추진('18~'23년, 742억원) * 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(~'21), 계조당 권역 복원(~'22) 등
	덕수궁	◆ 돈덕전 재건('17~'21년), 선원전 근대건축물 2동 보수정비(3~12월)
종묘/사직단		◆ 정전 및 월대 보수('20~'21) / 원지형 복원정비('18~'20), 전사청 권역 복원('20~'21)
왕릉		◆ 서삼릉 태실 정비 및 개방 추진, 효릉 개방을 위한 유관기관(농림축산식품부 등) 협의 ◆ 동구릉(휘릉) 수복방 복원, 수길원 정자각 복원설계 등

- (임청각 등 항일유산 복원정비) 항일 독립유적*을 역사문화 거점공간으로 복원정비하고,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* 임청각, (구)서대문형무소, 고흥 구 소록도 갯생원 감금실 등 7건

□ 역사문화권 가치 재조명 기반 마련

- (제도기반 마련) 단위문화재에서 시대별·문화권별* 조사·연구 및 발굴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, 정비·활용 할 수 있는 법적기반** 마련
 - * 고구려·백제·신라·가야·마한·탐라문화권 등
 - **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추진
- (맞춤형 전략) 역사문화권법 제정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존·관리·활용 전략* 마련 추진
 - * 역사문화권 지정, 정비 및 관광자원화 방안 등 주요정책·제도 개발
- (경주 등 4개 고도) 새로운 주민지원사업 모델* 발굴 및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·익산탐방거점센터 등 고도육성 인프라 확충 지원
 - * 주민주도형 마을해설사 양성, 미래세대 방문교육, 지역축제 기획·참여 등
- (가야문화권) 가야사 실체를 규명*하고,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**를 진행하는 한편, 가야사 향유기반 조성*** 추진
 - *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등 중요유적 발굴 4건, 문화재 추가 지정 검토 17건
 - ** 문화재위원회 심의('20.7.) 후, 등재신청서 제출(유네스코, '21~)
 - ***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('20~'23년, 295억원), 웹툰·다큐 등 콘텐츠 제작

□ 문화유산자원 지정·등록 확대 및 온전한 보수정비 추진

- (지정·등록) 문화재 유형별 기초조사(2,187건)를 실시하고, 조선 옛길(10로), 근현대 산업시설(구 영양 양조장 등 8건), 장애인 분야 문화유산(훈맹정음·수화교범 등)·5일장 등 중요자원을 문화재 지정·등록 추진
- (온전한 보수정비) 시대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수정비(6,082억원)
 - (세계유산) 한국의 서원·산사, 남한산성, 수원 화성 등 129건
 - (사적, 국보·보물) 풍납토성, 김해 구지봉, 동관왕묘 등 701건
 - (천연기념물·명승) 군산 선유도 망주봉, 부산 태종대 등 365건
 - (근·현대유산) 소록도·DMZ 내 문화유적 보존·관리 등 262건
- (전통건축부재 공급·활용)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(봉화, 339억원, '19~'23년) 하고, 고부재 재활용 복원모델 사업 추진(홍선대원군 거처 아재당, 23억원)

③ 전통기술 진흥과 수리품질 향상

□ 전통기술 진흥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

- (전통기술) 인력으로 가공하는 품셈기법 적용* 및 전통재료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**하여 전통기술을 진흥하는 한편, 전통재료 인증제*** 도입
 - * ‘경북궁 계조당’ 수리 목공사에 인력적용 품셈의 수리현장 여건과 부합성 검증
 - ** (’20.) 생산시설 지원방안 마련, (’21.~’22) 지원업체 공모·지원(업체별 1억원 범위 내)
 - *** (’20.) 인증절차 마련, (’21.) 전통안료 인증, (’22.~) 전통기와철물 등
- (재료복원) 전통소재 국산화*를 지속 추진하고, 전통단청 시범사업 확대** 적용을 통한 수리현장 직접 사용방안*** 마련
 - * (안료) 10종 기 개발, 5종 추가 개발, (아교) 제조기법 완료, 품질기준 마련(’21.)
 - ** (’18.) 2개소 → (’19.) 3개소 → (’20.) 6개소, *** 전통단청 시방서 마련(’20.)
- (전문인력) 수리기술자 교육대상을 확대*(수리법시행령 개정)하고, 수리기능자 교육방법을 개선**하는 한편, 수리종사자 역량강화 지원***
 - * (’19.) 문화재수리업자 소속의 기술자 → (’20.)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
 - ** (’19.) 이론위주 집합교육 → (’20.) 현장중심 교육 및 교육 운영비 지원(1억원)
 - *** 수리기능자 기능경진대회 및 작품전 지원

□ 문화재수리 체계 개선으로 수리품질 향상

- (설계심사)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심사 의무화 제도 도입(수리법 개정)에 따라 설계심사 기능을 강화*하고, 설계심사 절차 및 기준 마련
 - *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및 설계심사관 신설(국가·지자체), 전담인력 확보
- (수리현장 여건개선) 전문문화재 수리업 설립요건을 완화*하고, 수리업종을 세분화**하는 한편, 수리현장 임금직불제 시범 도입(아재당 복원)
 - * (’19.) 기술자 1명, 기능자 2명 이상 → (’20.) 기능자 2명 이상
 - ** (’19.) 목(木), 석(石), 번와(翻瓦) → (’20.) 미장, 온돌 등 추가(수리법시행령 개정)
- (수리이력 구축) 문화재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·활용하는 BIM*을 도입** 추진하고, 수리현장에 시범적용 후 단계별 확대*** 추진
 - * 건축부터 현재까지 건조물문화재의 모든 정보, ** (’20.) 작성·검증기준 마련
 - *** (’20.~’21) 논산 노강서원 → (’22.~) 주요 문화재에 확대 적용
- (진입장벽 완화) 문화재구역내 문화재가 아닌 일반건축 공사에 일반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(1억원)

4 품격있고 공정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

□ 전승자 처우개선 및 예우강화 추진

- (전승지원금 확대)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* 확대
* 보유자 : ('19) 135만원 → ('20)150만원 / 전수교육조교 : ('19) 68만원 → ('20) 70만원
- (명예보유자 인정) 고령의 전수교육조교 예우를 위한 명예보유자 인정
('20. 상/ 75세 이상, 경력 20년 이상 조교 26명 / 자율적 신청에 따라 전환)
- (인정서 발급주체 격상) 무형문화재 보유자·단체 인정서 발급주체 상향 조정 추진(무형법 개정)

□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성 · 공정성 강화

- (무형문화재위원회 세분화) 무형문화재 지식분야를 분리·신설*하여 심의 인정·지정과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
* ('19.) 전통예능+지식, 전통기술+지식 → ('20.) 전통예능, 전통기술, 전통지식
- (공정성 강화)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엄격하게 적용(1월)

□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합리적 개선

- (국가·시도무형문화재 연계) 국가·시도 무형문화재간 경력인정 체계 정비를 위해 협력체계 마련
 - (경력인정 체계 정비) 시·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경력을 이수자 및 전수조교 인정 시 반영(무형법 개정, '20.하.)하고,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인정기준에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경력 인정 추진(문체부 협업)
- (전수교육 권한 확대) 우수 전수조교 역량 발휘기회 제고를 위해 전수교육 권한을 보유자·보유단체에서 조교까지 확대 추진(무형법 개정)
- (종목별 맞춤형 관리) 종목별 활성화 정도 측정을 위한 지표기준*을 마련하여 종목별 관리·지원 개선방안 마련
* 전승자 수, 전승자 총원 용이성, 공연·전수교육 등 전승활동 실적 등

□ 무형문화재 전승 인프라 지속 확충

- (신규인프라) 무형문화재 종합 전승지원 강화 방안*을 마련하고, 전승자 지원 통합플랫폼**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

* 창업 및 상품개발 등 창의공방 기능 확대 수행 / '20~'23년 / 무형유산원

** 이수심사·전수교육 등 전승활동 지원 통합 관리(~'21년)

- (기존인프라)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개선(10억원) 및 지역전수교육관 확충*을 통해 지역거점화 하고, 전통공방 시설개선 범위** 확대

* ('19년) 157개소, 60억원 → ('20년) 161개소(광주, 경주, 이천), 106억원

** ('19년) 증축, 리모델링 → ('20년) 개축까지 포함 확대

- (전수교육관 기획 전담인력 배치) 전수교육관별 문화예술교육사를 신규 배치*하여 무형문화재 체험·공연·교육 등 프로그램 기능 강화

* 151개소 중 60개소 70여명 배치(21억원)

□ 무형문화재 전승 역량 강화

- (전문성 제고) 문화예술교육사 기획력 강화 교육과정을 신설(2회) 하고, 이수자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·멘토링제 도입

- (이수자 지원 확대) 이수자 주관의 공연과 기능분야 합동전시를 맞춤형 지원하고, 우수 이수자의 활동지원비* 지원대상 확대**

* 재료구입비, 활동비, 여비, 진행비 등 ** ('19년) 15종목 18명 → ('20년) 20종목 20명

□ 무형유산 국내외 보급 확산

- (무형유산도시 선정) '올해의 무형유산도시' 선정을 확대*하고, 무형유산 축제·교육 등을 지원하여 지역무형유산 가치 재조명

* ('19년) 1개(통영) → ('20년) 5개(양평시, 평창군, 대전시, 부여군, 진도군)

- (K-무형유산 해외공연) K-POP에 편승된 한류를 무형유산 분야까지 확산 유도(6억원, 브라질 등 남미권 국가에서 무형유산 공연, 5월)

- (전승공예품) 전승공예품 국내판매장을 추가* 확보하고, 국외에 대여·전시할 재외공관 확대** 선정

* 전주공예품전시관, 인천공항(제2터미널), 네이버 아트윈도우(온라인) 등

** ('19년) 18개소 → ('20년) 20개소(호주 등 오세아니아 주)

1] 궁능,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로 육성

□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 육성·지원

- (기존 프로그램 내실화) 궁중문화축전을 확대(연 1회→ 2회) 시행하고, 궁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*으로 내실화·다양화 추진
 - * (경복궁) 수문장 교대의식, 별빛야행, (창덕궁) 달빛기행, (덕수궁) 석조전 음악회, (창경궁) 전통예술공연, (종묘) 종묘대제, 묘현례 등
- (신규 프로그램) 지역축제와 연계한 조선왕릉문화제 개최(9~10월)하고, 왕릉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* 발굴하여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
 - * (선릉) 성종의 악학계범과 흥겨운 우리국악, (홍유릉) 고종의 안식처에서 듣는 대한제국 이야기, (서삼릉) 태(胎) 생명의 시작 등
- (조선왕릉 숲길 조성) 테마형·체험형 왕릉 숲길 조성·운영*을 확대**하고,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(600km)하는 순례길 조성 준비
 - * 왕릉 내 간단한 식음료 가능 구역 마련, 휴식·힐링·자연체험 공간으로 활용
 - ** ('19.) 5개소(정릉 북측 숲길 등), ('20.) 6개소(서오릉 창릉 서어나무길 등) 추가

□ 궁궐 전각 및 비공개 왕릉 개방 지속 확대

- (궁궐 전각 개방) 궁궐 전각 개방을 확대*하고, 궁중생활상을 보여주는 재현용품 전시 및 재현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 확대
 - * ('19년) 유희전각 134개 중 64개(경복궁 소주방·집옥재, 창덕궁 약방 등) → ('20년) 3개 추가(경복궁 흥복전, 창덕궁 궐내각사, 덕수궁 덕홍전)
- (비공개 왕릉 공개) 남양주 홍유릉 내 묘역(묘5기*) 추가 개방** (9월)
 - * 홍유릉내 광화당묘, 삼축당묘, 수인당묘, 귀인장씨묘, 수관당정씨묘
 - ** 개방현황 : (능) 40기 중 39기, (원) 14기 중 8기, (묘) 64기 중 11기(신규 5기 포함)
- (야간관람) 덕수궁·창경궁·선정릉은 상시* 개방하고, 경복궁은 야간 관람 개방일수 확대(71일→91일) 및 관람방법 개선 및 관람인원 확대**
 - * 덕수궁·창경궁(연중), 선정릉(3~10월) 상시 개방 ** ('19년) 온라인 예약제 → ('20년) 온라인 예약과 현장발권 병행(1일 4,500명 → 10,000명)

□ 궁능 관람 안내서비스 개선 및 제도정비

- (안내품질 제고) 고궁 외국어 안내해설사를 추가배치(82→85명) 하고, 안내해설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별 컨설팅 추진
 -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* 및 홍보물(리플릿) 언어권 다변화**
 - * (수라간 시식공감) '19년3회→'20년6회, (창덕궁 달빛기행) '19년15회→'20년27회
 - ** 영어, 중국어, 일어 외에 베트남어, 인도네시아어 등 추가 제작(4대궁)
- (무료입장 확대, 관람료 조정) 임산부 무료입장* 등 배려계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고, 일반관람객 대상 관람료 개편방안 마련('20.하. 기재부 협의)
 - * 관람규정 개정(3월), 동행 1인 무료입장 포함

□ 궁능 관리 및 관람 편의시설 확충·개선

- (무인입장)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입장시스템 도입 확대
 - * ('19년) 창경궁, 덕수궁(2개소) → ('20년) 경복궁, 창덕궁, 선릉, 서오릉, 용릉 추가(7개소)
- (편의시설) 궁능 내 관람객 편의시설을 지속 개선*하는 한편, 노후화된 조선왕릉역사관 전시시설 및 전시구성 교체**
 - * (신축)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신축, 고양 서삼릉 화장실, (개선) 경복궁 주차시설, 경복궁 향원정 안내판, 서오릉 관람데크 및 쉼터 등
 - ** 동구릉 등 8개 조선왕릉 역사문화관(24억원)
- (궁·능 통합상황실 구축) 궁능본부 내 통합상황실을 신규 구축하고, 궁·능별 현장상황실(9개소)과 연계·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대응

□ 시민참여형 궁능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확대

- (시민참여) 궁중문화축전 기획·운영 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확대하고,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궁궐 확대*
 - * 시민배우 공모 참여 : ('19년) 덕수궁·창경궁(시간여행 그날), 종묘(종묘 묘현례) → ('20년) 창덕궁 추가(시간여행 그날)
- (궁능 활용) 궁궐을 한류 콘텐츠 제작 장소로 활용하고, 무형문화재 보유자·이수자에게 공연 및 공예작품 전시 장소로 제공 추진
 - * 경복궁 흥복전, 창경궁 통명전, 왕릉 재실 등 개방·활용 확대

②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가치 확산

□ 유네스코 유산 지속 등재

- (세계유산) ‘한국의 갯벌’ 이 등재(7월,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) 되도록 노력하고, 차기 신청대상은 국내절차를 거쳐 심의·선정(7월, 1건)
- (인류무형유산) ‘연등회’가 등재(12월,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)되도록 노력하고, 지속적 등재를 위해 ‘한국의 탈춤’ 등재신청서 제출(3월)

□ 유네스코 협력체계 마련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

- (세계유산 협약) 세계유산 관리 국제기준 이행 및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*를 정비하고, 세계유산 모니터링(’20.9~’21.5월) 결과 유네스코 제출
 - * 유산영향평가(HIA) 도입 준비 및 세계유산 보존·관리·활용 종합계획 마련 등
- (무형유산 협약)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국제기준* 마련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
 - *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 개발(12월)
- (세계유산 해석기준 제시) 세계유산의 국제적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‘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’(카테고리Ⅱ*) 설치 추진**
 - * 유네스코와 당사국이 공동 설립·운영하는 기관
 - ** (’20.하) 유네스코와 설립 협정 체결 → (’21.하) 센터 설립

□ 활용·홍보 강화로 등재 효과 제고

- (국내외 홍보) 유네스코 유산의 인지도 향상과 국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쟁력 있는 대표 사업*을 신규 발굴·선정하여 집중 지원**
 - *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참가(10월/두바이), 인류무형유산 공연(10월/멕시코), 세계기록유산 ‘동의보감’·‘직지심체요절’ 전시(하반기/이탈리아 등)
 - ** 세계유산(제주자연유산 체험전 등, 20억원), 인류무형유산(영산재 전승활동 지원 등, 10억원), 세계기록유산(해외교민대상 ‘직지캠프’ 등, 20억원)
- (콘텐츠 개발) 세계인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인 명품 콘텐츠 개발 추진
 - * ‘한국의 서원별 둘레길’ 조성(29억원),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(14개 세계유산 대상)

3]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와 활용

□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으로 환수성과 제고

- (환수전략 마련) 국외문화재 환수방식을 다각화* 하고, 중장기 전략** 수립(12월)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성과 지속 도출

* 도난 문화재 홍보물 배포로 자발적 기증(환수) 확대 및 공고 매입 추가

** 우호적 환수여건 조성, 미국·일본 등 협력망 구축, 환수 공로자 예우 등

- (조사방식 개선) 조사수량 중심에서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식으로 개선* 하고, 조사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 국외문화재 정보시스템** 구축

* ('19년) 박물관 등 소장기관 중심 조사 → ('20년) 문화재별·반출경로별 테마 기획조사

** 국외문화재 현황·상태·이력 등 관리('20~'22년)

- (협력 및 홍보 강화)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환수채널*을 지속 운영하고,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홍보** 강화 추진

* 민간단체 지원(1.8억원),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(불법거래 방지교육, 국외 현지 세미나)

** 환수 문화재 언론 및 대국민 공개(연중), 보존처리 완료 국외문화재 특별전 개최('20.12월, 고궁박물관), 환수·활용 사업 결과 책자 발간 및 배포(연중) 등

□ 국외부동산 문화재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

- (실태조사)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우리 외교공관 등 현황 파악* 및 중점활용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, 국외부동산 문화재의 보호·활용 협력채널** 신설

* 프랑스·인도·영국·덴마크·네덜란드 등 소재 우리외교 공관, 멕시코·쿠바 등 이민사 관련 국외부동산 문화재 실태조사 추진(독립기념관 협업, '20.상.)

** 국외 저명인사 중심으로 문화유산 친우회 결성(12월) / 독립기념관 및 재외동포 재단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(연중) 등 추진

- (활용 콘텐츠 개발) 국외부동산 문화재 브랜드 이미지 활용 콘텐츠를*를 개발 하고, 국외부동산 문화재 홍보 등에 활용

* 외국 현지 교사용 책자, 재미 독립운동 관련 답사 프로그램 개발, 한미 교류사 7개소 등 시범답사 코스(미국 워싱턴 DC)

4] 문화재 국제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

□ 무상원조(ODA)를 통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환경 조성

- (수원국 호응)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*한 ODA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적극적 호응과 협력 강화 유도
 - * (라오스) 흥남시다 사원 정비와 고대길 관광프로그램 연계, (미얀마) 바간 사원 벽화 보존처리 체계구축 및 관광자원화 기반정비 등
- (신북방 ODA) 중앙아시아 지역 ODA사업 신규 진출*로 공적개발 원조 교두보를 마련하여 신북방정책 확대(몽골**) 여건 조성
 - * (우즈베키스탄) 아프로시아트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, 보존·활용 기술 연수 및 워크숍(4~9월) ** 문화상품 공동개발 및 활용노하우 제공

□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국제역량 강화

- (국제교류 다변화) 국가간 인적·물적교류* 및 학술교류**를 강화하고, 다변화***하여 문화유산 분야 국제동향에 탄력적 대응역량 강화
 - * 몽골 조류서식지 자연유산지킴이 위촉(3월, 신규), ACPCS 아시아권 문화유산 전문가 초청(4월), 한·일 고대문화 형성 공동연구(나라연구소, 5월)
 - ** 동아시아 공중회화 학술대회(10월), 근대기록 보존전문가 국제워크숍(9월),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(무형원, 9월), 무형유산분야 재외동포와 협력사업 확대(2~3개국)
 - *** 해외대학 교류 확대(스웨덴 읍살라대, 멕시코 국립보존복원박물관학교 등) / 해외기관 교류 지속 추진(프랑스 해양문화재연구소,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등)
- (아·태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) 문화유산 교류, 문화재 환수, ODA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내 문화유산 국제기구 설립 추진
 - * ('20. 상.) 협력기구 설립계획 수립, ('20. 하) 기구설립 협의(아세안 사무국)

□ 유연하고 탄력적인 남북문화재 교류협력

- (협력사업 다양화) 북한 소재 민족유산 공동조사 및 교류 확대*로 남북간 신뢰구축을 유도하여 문화재 협력강화 추진
 - * (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보존)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(9차), 태봉국 철원도성 남북공동조사, 개성역사지구 보존 중장기 계획 수립 등
- (DMZ 세계유산 등재) DMZ를 남북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*하여 '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' 실현 유도(국방부·외교부·통일부 협업)
 - * DMZ 타당성 조사 연구(2월), DMZ 실태조사(3월), 남북협의 및 잠정목록 등재(12월)

(붙임)

2020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 인포그래픽

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, 문화재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



01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

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

- 문화재 정책대상 확대
 - 비지정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 전국 조사
 - 2020년 2021~2024년
 - 대구·경북·강원권 → 전국 시·도
 -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본격 시행



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

-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확대
3만m² 미만 공사 → 모든 공사
- 문화재 산업 규제 완화
 - 문화재 수리업 등록 및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
 - 발굴경비 지원 범위 확대 (유존지역 외 발견 신고 지역)



문화유산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

-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
- 문화유산 산업 통계조사 및 생태계 조성
- 문화재 콘텐츠를 활용한
마을기업 창업 지원 모델 개발
-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



02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

지역 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·지원

• 지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육성·지원

-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

290 → 385 개소

•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

-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·운영 (7개 코스)

- 문화유산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·배포

- K-POP스타 문화유산 방문 영상 제작

•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확대

60개소 112개 → 65개소 123개

• 문화재 안내판 알기쉽게 정비

2,500 → 3,900 권



배려계층을 위한 장벽없는 문화유산 향유

• 문화유산 무장애 공간 확대

궁궐·조선왕릉 → 전국



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

• 문화유산 3D스캐닝·프린팅, CAD도면 등 데이터 개방

1,500 → 2,500 권

• 5G기반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



문화유산 교육·민관참여 활성화

• 문화유산 교육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

• 문화유산국민신탁 지부 본격 운영 (대전, 부산)



보수·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

- 항일 독립유적 복원 및 정비 (구 서대문형문소 등)
- 역사문화권 단위 문화유산 관리



문화재 지정·등록 확대

- 근현대 문화유산 (인천 팔미도 등대 등)
- 조선 옛길 (10도), 훈맹정음 등



품격있는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

- 보유자 전승지원금 확대
135 → 150 만 원
- 보유자 인정서 발급주체 상향 추진



문화재 안전관리 및 수리체계 강화

- 최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
 - 문화재 전기화재 예방 ICT 시스템 최초 적용
50 개소
 - 사물인터넷(IoT) 기반 방재시스템 확대
35 → 55 개소
- 전통기술 진흥 및 수리품질 향상
 - 안료 및 아교 국산화, 전통단청 수리현장 사용 추진



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

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

• 궁능 확대 개방 및 서비스 개선

- 궁중문화축전 연 2회 실시, 조선왕릉문화제 신설
- 비공개 구역 추가 개방 (경복궁 흥복전, 덕수궁 덕홍전 등)
- 동남아권 언어 홍보 리플릿 등 배포
- 무인입장시스템 확대 **2 → 7** 개소



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확대

•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

- 세계유산 등재 (한국의 개별) **14 → 15** 건
-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(연등회) **20 → 21** 건

• 국제 협력기관 설치 및 설립 추진

-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,
한·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국제기구 등

•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재외공관 조사 등



남북 문화재 교류협력

• 북한 소재 민족문화유산 공동조사

- 개성 만월대 (9차), 태봉국 철원도성 등

•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

